

쓰레기 처리 문제 및 개선방안

인간은 생활을 영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는 60년대까지는 주요산업이 1차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용품들이 대부분 인위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물질이 아닌 자연에서 그대로 구했기 때문에 배출쓰레기를 일정장소에 적당히 처리하여도 자연의 물질순환계에 의하여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며 또한 물질이 귀한 사정이어서 대부분 재사용, 재활용되어 특별히 버릴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7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고도산업 사회에 접어들고 인구도시 집중화 및 자연상태에서 좀처럼 분해되지 않는 새로운 학제물질 소재들이 다량 생산되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의하여 많은 양의 물질이 소모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인간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됨은 물론 배출량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의 당면한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의해 보고자 합니다.

I .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

1. 쓰레기 발생량

• 우리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9년도 기준 년간 약 598천톤으로 1일 4.5톤·평균 차량 약 400여 대분에 해당됩니다. 이는 1인1일 0.85kg을 배출하는 것으로서 전국 평균배출량 0.81kg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평균배출량 0.91kg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쓰레기 발생량은 90년대초 1인당 1일 평균배출량 2.0kg이상이었던 것이 92년부터 95년 까지 3개년간 쓰레기 30% 줄이기의 일환으로 전국적

으로 시행하였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의 추진 성과와 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한 결과에 의하여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 또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145천톤/년으로 24%, 재활용 가능쓰레기가 169천톤/년으로 28%, 기타 나머지 쓰레기가 284천톤/년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성상별로 구분해 보면 가연성 쓰레기가 355천톤/년으로 60% 불연성쓰레기가 74천톤/년으로 12%, 재활용성 쓰레기가 169천톤/년으로 28% 배출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비교〉

(단위 : kg/인, 일)

충남	전국	일본	독일	영국	미탈리아	비고
0.85	0.81	1.1	0.85	1.0	0.69	

〈생활쓰레기 발생현황〉

(단위 : 천톤/년)

증가된 부분			성장된 부분			비 고
재활용률	음식물률	기타는	구현성	재활용률		
169 (28 %)	145 (24 %)	284 (48 %)	355 (60 %)	74 (12 %)	169 (28 %)	

2. 쓰레기 처리실태

- 쓰레기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총 발생량의 35%인 210천톤/년은 분리 수집 재활용하고 13%인 79천톤/년은 소각처리하며 나머지 52%인 309천톤/년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처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재활용은 그간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품목별로 구분해보면 고철류가 50톤/년으로 30%, 고지류가 79톤/년으로 47%, 빙병류가

21톤/년으로 12%, 폐비닐 등 합성수지류가 6톤/년으로 3%, 기타가 13톤/년으로 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립처리에 있어서는 그 동안 꾸준한 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90년대초까지 그때그때 임시적 으로 소규모 비위생매립에 의존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지금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계법규 정에 적합한 위생매립시설을 조성 위생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실태〉

(단위 : 천톤/년)

재활용처리			매립처리			비 고
소재	재활용률	음식물률	구현성	재활용률	음식물률	
210 (35 %)	153 (26 %)	57 (9 %)	79 (13 %)	309 (52 %)	254 (43 %)	55 (9 %)

3. 쓰레기처리시설 확보현황

(1) 쓰레기 매립시설

- 도내 쓰레기 매립시설은 총 27개소로 이중 15%인 4개소(천안, 공주, 서천, 당진)는 10년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한 매립용량 100천㎥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나 19%인 5개소(보령, 서산, 계룡, 연기, 홍성)는 5년여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18개소는 10천㎥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가까운 시일내 제조성하지 아니하

면 안정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시설형태도 앞의 처리실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첨출수 차수 및 정화처리시설 등을 완벽히 갖추고 위생처리하고 있는 매립시설은 11개소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나머지 59%인 16개소는 간이처리시설 또는 임시매립시설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확보현황〉

(단위 : 개소)

원천매립시설(사용기한)					
소재	10년이상	5~10년	5년미만	3년미만	2년미만
23 (85 %)	4 (15 %)	5 (19 %)	9 (32 %)	5 (19 %)	4 (15 %)

(2) 쓰레기 소각시설

• 가동중인 쓰레기 소각시설은 총 90여개소이나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가동중인 소각능력 50톤/일의 공주시 소각시설과 소각능력 36톤/일인 홍성군 소각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당 100kg 내·외의 소규모 시설로 적정처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고 시설노후로 조속한 시일내 폐쇄조치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 또한 건설중인 소각시설은 소각능력 200톤/일의

천안시 소각시설이 2001년 11월 완공목표로 추진, 재공정 80%에 이르고 있으며 그밖에 서산시(50톤/일), 부여군(24톤/일), 서천군(10톤/일), 예산군(50톤/일), 태안군(30톤/일) 등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소각시설 설치가 극히 미미하여 좁은 국토의 효율적이용측면 등을 고려할 때 소각처리율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추진현황>

시군구	설치기간	시설규모	사업비	비고
계	9개소	470	77,151	
천안시	'99~2001	200	30,261	
공주시	2000~2001	50	8,000	민자유치가동중
서산시	2001~2002	50	10,000	
계룡시	2001~2002	20	4,000	
부여군	2001~2002	24	4,800	
서천군	2001~2002	10	2,000	
홍성군	'96~'97	36	2,090	가동중
예산군	2001~2002	50	10,000	
태안군	2002~2002	30	6,000	

(3)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 현재 설치가동중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10개소가 있으며 시설용량은 천안시 30톤/일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톤/일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써 총 79.4톤/일이며 국비 1,033백만원, 도비 839백만원, 시·군비 3,039백만원 합계 4,911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 이들 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사료화시설이 3개소, 퇴비화시설이 4개소, 사료와 퇴비겸용 시설이 3개소 있으며 이러한 공공시설이 외에 민간에서 일부 축산농가 및 위탁처리업체에서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 재활용 처리하고 있어도 내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 재활용 처리시설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 분리수거가 본격 추진되면서 각 시·군별로 크고 작은 재활용 선별창고와 압축기, 감용기 등 장비 등을 확보하였으나 대부분 시·군이 300㎥도 못 미치는 작은 시설면적과 선진국과 같이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쓰레기처리 인력 및 장비확보현황

(1) 청소인력

- 도내에는 총 1,489명의 청소인력이 있으며 이중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1,132명으로 76%이며 일부 시·군의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357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명)

운전원		환경미화원			
소속	사·군	직급	소속	직급	직급
349	259	90	1,140	873	267

(2) 청소장비

- 청소장비는 총 410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이 349대,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이 32대, 음식물전용운반차량이 10대, 매립장 관리용인 굴삭기 등 중장비가 19대가동되고 있습니다.

-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중 자동상차가 가능한 현대적 차량인 압축차량은 97대로 총 수거차량 349대중 28%에 머물고 있고 음식물전용 운반차량은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시·군이 있어 일반 청소차량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확보현황〉 (단위: 대)

운반차량		환경미화차량			
소속	사·군	직급	소속	직급	직급
410	349	97	132	120	32

기타장비		매립장 관리장비			
소속	사·군	직급	소속	직급	직급
10	19				

5.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현황

-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실태를 살펴보면 총 16개 시·군·출장소중 7개 시·군·출장소는 아직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시·군이 위탁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아산시와 서천군을 제외하고는 일부 도시지역만 위탁하

던가 공동주택지역만 위탁하고 있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과 광역시 등 대도시지역의 대부분 위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운반 민간위탁 현황〉

(단위: 기소)

민간위탁			
기수	시·군	읍면동	면적
2	5	2	7

II. 쓰레기처리 문제점

1. 쓰레기처리 기반시설확충 지난

(1) 설치반대 집단민원 빈발

- 우리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누구나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며 또한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처리하여야 함에도 「나는 쓰레기를 배출할 망정 내 주변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즉, 낌비현상으로 처리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주민반발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자기 주변에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첫째, 부동산가격 하락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둘째, 환경오염등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며 셋째, 기타 생활불편등 간접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집단반발을 해소하고자 그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비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과거의 쓰레기 매립시설과 근자 소각시설에서 다량배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불신으로 대화자체가 거부되는 실정입니다.

- 또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규정등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등 일부 부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으

나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점차 생활수준 향상으로 패격한 환경욕구 및 건강한 삶 추구등으로 좀처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극렬 시위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발생현황〉

지 역	시설규모	민원내용	처리상황
이산 선정매립장	76,800 m ²	설치반대	사업중단(대화중)
금산 주부매립장	38,863 m ²	"	"
태안 석선매립장	50,161 m ²	"	"
계통 암암매립장	26,299 m ²	환경오염 피해보상	보상 협의중

(2) 처리시설 설치부지 확보 지난

•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국토에서 주민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농경지 등 처리시설 설치가 부적절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정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 특히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하여는 발생지와 처리장소가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함에도 쓰레기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은 여건상 적정부지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처리시설 설치예산 과다소요

• 쓰레기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매입비는 물론 첨출수처리 등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 또한 집단반발민원 해소대책으로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사업비 부담이 과증되고 있습니다.

• 반면 시·군의 청소재정자립도는 평균 20%에 머물고 있고 이와 관련 국비지원도 대부분 30~50%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국내 처리시설 기술부족등에 의한 기술료 지불 및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소각시설의 경우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비 평균 소요예산 판단〉

(단위 : 백만원)

매립시설(100천t/일 기준)				소각시설(100톤/일 기준)			
계	부지매입비	시설비	주민지원 사업비등	계	부지매입비	시설비	주민지원 사업비등
10,000	2,000	5,000	3,000	20,000	500	15,000	4,500

2. 주민 환경보전의식 부족

(1)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지 미흡

•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편의 위주의 쓰레기 생산 형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1회용품등 불필요한 쓰레기가 다량 발생되고 있으며

• 또한 종전 어려웠던 시절의 근검절약 정신은 현재 찾아 보기 힘들고 일상생활 도처에서 사치풍조 및 과소비 낭비가 만연하고 있어 중요한 자원이 재사용·재활용 되지 않고 쓰레기로 배출 처리되고 있습니다.

•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까지 어른들의 이러한 생활 습관 영향으로 외국물품 선호등 무분별한 소비형태와 분실한 학용품등 소지물건도 되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려고만 하는 그릇된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을 과증하고 있습니다.

(2)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 음식물쓰레기 또한 먹을 것이 적었던 지난날을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 도처에서 급주림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망각, 귀중한 음식물을 함부로 취급 쓰레기화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최대 문제점인 풍성한 상차림 습관은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포함하여 쓰레기 매립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침출수, 악취, 해충 등의 발생인자로써 쓰레기 매립시설이 그간 혐오 시설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쓰레기 불법처리 만연

•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시가지, 공한지 등 취약지역과 인적이

듬한 한적한 장소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불법소각 및 투기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홍보와 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결과 불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또한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지 못하고 담배꽁초 투기등 미미한 행위만 신고하는 직업적인 전문 신고자를 양성, 당초 구상을 크게 벗어나는 시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 이는 줄법정신 결여와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주민의지가 부족하고 생활속에 습관화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더 많은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쓰레기처리체계 불합리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처리체계 미흡

• IMF 이후 경제난 등으로 고물상등 재활용품 수집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자가 증가하고 고지, 고철, 현웃, PET병 등 일부 재활용품은 국제가격 상승 및 수출증가로 민간부문에서 많은 양이 수집 재활용되고 있으나 경제성 면에서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농촌 폐비닐 등 합성수지류는 제때 수거 처리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수거체계를 확립, 분리수거 재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도 현재 사료화, 퇴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과 처리방법별 각각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재활용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에 있어서도 분리배출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공동주택지역 및 재활용 의무사업장 등에서 일부 분리 배출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

역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분리배출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 매립처리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장비·시설 현대화(자동화)을 저조

- 선진국의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이 대부분 자동상차할 수 있는 현대적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인력으로 직접 차량에 적재하고 있어 수거효율을 떨어뜨리고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쓰레기종량제 이전 쓰레기 수거장비 현대화 시책에 의하여 많은 지역에서 압축청소차량 및 자동상차용기가 확충 보급되어 갔으나 종량제 이후 쓰레기 비규격봉투 사용방지 목적으로 이용을 중단시켜 그나마 보급된 자동상차용기가 매립장 등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3) 고비용 저효율 처리체계

- 지속적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시책 추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혁혁히 감소하여 쓰레기처리 인력 및 장비등에 대한 정확한 경영진단을 실시 적정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에 안주 소극적으로 대처 고비용처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쓰레기처리도 민간 경영체제를 도입, 처리비용을 최소화 되도록 민영화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군에서 적영처리하고 있어 불합리한 운영관리에 의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행정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전문화되어야 함에도 업무과중 등에 의하여 대부분 시·군 담당직원이 근무배치를 기피하고 자주 교체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III. 개선방안

1. 쓰레기처리기반시설 확충

(1) 적극적인 민자유치

- 시설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시·군 차치단체 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 지원도 만족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하여 시설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능력과 경영기법을 도입 최소비용으로 적정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인력배치 및 운영관리비를 절감 효율적인 시설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특히 소각시설은 전문업체의 기술력 등에 따라 설치비와 운영비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사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검증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경우 좋은 성과가 기대되며 현재 도내에는 공주시가 소각시설을 민자유치로 가동중에 있고 논산시 및 기타 몇 개 시·군에서 민자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소각처리율 증대 및 폐열이용

-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좁은 국토내에서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설치 반대 민원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웃 일본과 같이 일정량은 소각처리 방법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물론 소각시설 설치에도 대기오염 우려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상존하지만 지금은 대기오염 방지기술의 향상과 시설관리기준의 강화 등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 선진국과 같이 소각시설 가동중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 전력생산 및 난방원으로 활용할 경우 석유, 석탄 등 대부분 에너지원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쓰레기 처리와 함께 자원을 재활용하고 절약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지속적인 주민 설득 및 이해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각처리율 비교>

우리나라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비교
전국	우리도	70%	30%	46%	25%	
10.2%	13%					

(3)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 우리나라 쓰레기처리에 가장 큰 과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을 매립처리할 경우 악취, 해충 발생은 물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침출수 부하량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어

• 음식물쓰레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계도하고 일단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분리수거, 사료로 재활용하여야겠으며 사료화가 불가능 할 경우 퇴비 등으로 이용하여 매립시설 문제도 해결하고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시설장비 현대화(자동화)

• 선진국의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이 자동상차할 수 있는 현대화 되어 있는 장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이탈리아의 경우 운전원 1인이 하차하지 않고 운전석에서 모니터를 보며 기계작동으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용기를 자동상차 수거하고 있어 많은 예산절감과 함께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 우리나라는 대부분 청소차량 1대당 운전원 1인 이외에 환경미화원 2~3명이 구보를 해가며 인력으로 수동상차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많은 인력투입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 소요 등이 발생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도 캔·고지·페트병 등 부피가 많이 나가는 품목은 운송이 용이하도록 압축기 등을 설치 부피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대부분 미설치 또는 소형시설에 그쳐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동화된 현대적 시설이 확충되어 효율적인 재활용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1) 운영관리 민영화 및 광역화 추진

•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등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민영화 할 경우 최소비용으로 적정처리가 가능할 사항으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 구조조정 및 운영관리 개선차원에서 이를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전면적인 확대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 환경미화원의 근무의무 승계조건 등으로 당장에 기대한 만큼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없겠으나 일정기간의 의무승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할 경우 많은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민간의 축적된 기술력과 창의력에 의하여 발전된 쓰레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쓰레기처리 업무를 지금과 같이 시·군별로 각각 운영하고 심지어는 읍·면별로도 운영하는 시·군이 아직도 남아 있어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는바 이 또한 가능한 광역화하여 인력·장비의 적정배치 및 처리시설 대형화 또는 빅딜화할 경우 처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활용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 IMF이후 실업인구의 증가 및 원자재값 상승등으로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민간수집상 등에 의하여 수집·재활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플라스틱 및 농촌폐비닐 등 합성수지류와 일부 병류등이 재활용화 되지 않고 불법소각 및 방치되거나 매립처리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수집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합성수지류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매입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로 재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화석연료가 고갈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압축비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대로 방치 및 매립·소각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하나의 실천방안으로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현재와 같은 수지타산적 운영에서 벗어나 이러한 폼목에 대하여 전담하여 수집·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경우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3)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 재활용품과 대형쓰레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생필품 구입시 1회용 비닐봉투가 다량 배출되어 쓰레기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비닐쓰레기 배출이 가중되고 있어 배출방법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째, 음식물쓰레기는 플라스틱 용기등 별도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비닐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앞 배출시 개와 고양이 등이 봉투를 파손하여 시가지를 불결하게 하는 것과 수거후 재활용시 사용 폐비닐을 별도로 선별·제거하여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배출방법을 개선할 경우 비닐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공동주택의 경우 부녀회등 자체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바 가정별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동단위별로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동별 자동상차용기를 설치 배출할 경우 비닐쓰레기도 줄이고 자동상차에 의한 수거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셋째, 지금처럼 주민들마다 시간적 생활패턴이 다른 현대사회에서 쓰레기 배출시간을 일정하게 규정하기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고 마이카시대의 장점을 이용하여 주민이 배출쓰레기를 지역처리시설에 직접 자기차량을 이용 운송·배출할 경우 종량제에서 제외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도록 가능하도록 하면 비닐쓰레기는 줄일 수 있으며, 어차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으로는 쓰레기 수거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쓰레기 수거예산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프랑스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3. 주민 홍보 및 계도강화

(1) 환경홍보·교육관 설치운영

• 환경보전의 주요관건은 무엇보다도 주민 모두가 생활속에서 솔선 실천하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 또한 홍보 및 교육방법도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던 일방적인 주입 및 전달방법과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방법만으로는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이 되지 않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이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담 홍보·교육관을 설치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제적이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과 흥미를 갖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상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 현재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소각시설등 쓰레기 처리시설내 주민 후생복지시설과 함께 재활용품 수집·교환, 판매시설, 환경보전 관련 전시시설 및 시청각시설, 체험학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부 및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

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 환경관련 민간단체 중심의 참여적 주민홍보

• 홍보 및 교육을 관주도로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성과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지역의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체험학습 등의 방법으로 홍보 및 교육분야에 많은 참여와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권장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특히 초등학교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려서부터 습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한 학교에서도 교과과정 및 기타 학교생활 과정에서도 수시로 이러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T.V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실시

• T.V매체의 위력에 대하여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만 환경스페셜, 환경다큐멘

터리 등 환경보전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 방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밖에 드라마 안에서나 기타 교양강좌 등에서도 환경보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방영할 경우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도의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제가 제시한 개선방안 이외에도 더 좋은 개선방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당면하고 있는 이 쓰레기처리 문제는 인류가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문제를 포함 환경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주민모두가 확고한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생활속에서 솔선 실천하여야 만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